

외교부, 이란과 양자협약의 이해"이란 사전합의시 韓선박 통과"

주한이란대사 "한국에 선박정보 요청"...외교부, 정보 전달한 적 없어

이란대사관, 서울서 사진전·다큐멘터리 상영회 열고 여론전



사이드 쿠제지 주한이란대사는 26일 사전 합의가 있으면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이란과 양자 차원에서 우리 선박의 통행 협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이드 쿠제지 주한이란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사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비적대 국가에 들어간다"면서도 "이란 정부·군과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전쟁 중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이란의 방어권"이라며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통행은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세에드 압바스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이 최근 조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한국 선박 명단과 각 선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란과 양자 차원에서 한국 선박 통행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에 한국 국적 선박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제지 대사의 '선박 정보 요청' 발언에 대해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계기에 우리 측이 요청한 정박 중인 배의 인도적 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한국 선박에서 불차 부족 등 인도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란 측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한국 국적 선박 통행 문제를 두고 양자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를 이란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상영행사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란 측은 피로 물든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초등학교 공습으로 사망한 어린이들과 오염하는 가족들의 영상 등을 보여줬다.

또한 대사관 내부 벽면에는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사 등을 게시했다.

이채봉 기자

대우건설,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 개최

AI·자동화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따라 Hyper E&C에 걸맞는 스마트건설 경쟁력 갖출 것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6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은 대우건설의 사내 협업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2025년의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에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Q-Box : 대우건설이 개발한 솔루션으로 현장의 품질 관리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 건축 BIM, 바로답 AI 바로답 등 2025년에 현장에 보급되어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Q-Box를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LL AI Agent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LL AI Agent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대우건설은 2026년 현장자동화 실증(PoC PoC : 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Agent 개발·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제시하며, 김보현 대표이사가 2026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AI 돌봄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

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전화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 및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주거·돌봄서비스에 AI를 접목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지자체 인건 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LH는 올해부터 'AI 돌봄전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역시 대폭 늘려 본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AI로 보완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자 역시 지난해 4천7백 명에서 최대 8천 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

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다양한 정보를 24시간 상담해 주는 'AI콜센터'를 연내 구축하며,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임대주택 유지보수 신청·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운영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하여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 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귀영 기자

풀무원,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풀무원(대표 이우봉)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26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권리를 승계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수준과

보상 체계의 공정성, 발명 장려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풀무원은 최근 2년간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풀무원의 R&D 담당조직인 풀무원기술원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원·등록 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기반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리 승계 절차와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풀무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JW중외제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 상처치료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 기부

전국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 1,800개 제품 전달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 상처 부위 열감 낮춰 흉터 최소화에도 도움 주는 프리미엄 습윤밴드

JW중외제약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손잡고 영유아 안전사고 상처 응급처치 지원을 위해 상처 치료용 습윤밴드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 1,800개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영유아 안전사고의 초기 대처를 지원하고, 올바른 상처 관리를 통해 영유아 흉터 발생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물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하이맘 번 더프리미엄'은 상처



부위의 열감을 즉각적으로 낮춰

흉터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습윤밴드다.

화상을 비롯해 열감이 있는 상처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외부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연약한 영유아들의 초기 응급처치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번 기부 물품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우리 아이를 살리는 생활 속 안전교육' 사업과 연계되어, 해당 교육을 수강한 전국 어린이집 학부모 1,800명에게 구급키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영유아

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연약해 상처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가 흉터 예방의 핵심"이라며 "이번 물품 기부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아이들이 흉터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상처 케어 브랜드인 '하이맘'은 다양한 상처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습윤밴드, 드레싱밴드, 스팟패치, 화상밴드 등 20여 종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상처 부위에 사용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뚜레쥬르, 맛있는 건강빵 'SLOW TLJ' 4종 출시.. 라인업 확대

뚜레쥬르, 'SLOW TLJ' 신제품 4종 출시하며 건강빵 라인업 강화

저당 단팥빵, 케이크 등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형 건강빵'으로 확장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맛있는 건강빵 'SLOW TLJ' 신제품 4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케이크, 간식빵 등으로 카테고리별 확장해 일상 속에서 더욱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먼저 'SLOW TLJ' 최초의 케이크 제품인 '다이트하게 즐기는 다크 초코 케이크'는 저당 설계로 당 부담을 낮추면서도 초콜릿 특유의 깊고 진한 풍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헬스플래저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도 맛있고 가

볍게 즐길 수 있다.

뚜레쥬르의 대표 인기 제품인 단팥빵도 건강빵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계란, 우유, 버터를 넣지 않은 '쫄득 쫄득 단팥빵'은 쫄득한 빵 안을 향유 가득 담은 쫄득한 빵 안에 무설탕 팥 앙금과 고소한 견과류를 더해 건강과 맛의 균형을 완성했다.

담백하면서도 풍부한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당 단팥빵이다.

식사빵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건강빵도 함께 선보인다. '후르츠 호밀 사워도우'는 은은한 산

미가 매력적인 발아 호밀 사워도우에 식이섬유와 고소함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다.

발아 호밀은 호밀을 싹 틔워 만든 곡물로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여기에 대추야자와 견자두 등 각종 견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올리브 치즈 톱파뉴'는 대표 식사빵인 '캄파뉴'에 올리브와 치즈로 짭조름한 맛을, 호두와 크랜베리로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더했다. 뚜레쥬르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맛있는 건강빵'을 일사속으로 확장에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하나은행, 『하나원큐 이사 가는 날! 집들이 이벤트』

손님 편의성·속도·보안성 전반에 걸쳐 강화된 새로운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더욱 쉽고, 빠르고, 편리해진 'NEW 하나원큐' 출시를 기념해 『하나원큐 이사 가는 날! 집들이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손님께 드리는 집들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를 설치하고 로그인한 손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집들이 선물이 인기가 높은 다양한 생활 밀착형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집 꾸미기 지원금 300만원(1명) ▲미니스톼 식용 처리기(30명) ▲네스프레소 커피머신(100명) ▲짜파게티(5,000명) ▲머니클락(6,000명) 등 물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를 설치하고 로그인한 손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 전원에게는 최대 1,111원의 랜덤 캐시도 증정한다. 『하나원큐 이사 가는

날! 집들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W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 하나원큐'는 손님 중심의 개인화 서비스와 자산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손님 유형 및 이용 패턴에 따라 자주 쓰는 메뉴와 홈 화면을 자동으로 구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금융자산 뿐 아니라 건강·여가·취미활동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디지털금융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NEW 하나원큐'의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경험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손님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